머리에 또 머리 얹는 부질없는 짓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㊸ 무위(無爲)와 유위(有爲)

"산승에게는 남에게 줄 법이 하나도 없다. 그저 병을 치료해 주고 속박을 풀어 줄 뿐이니라. 그대들, 제방에서 도를 닦는 이들이여, 시험 삼아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말고 나와 보라. 내 그대들과 법을 논하고 싶으니라. 10년이나 5년이나 모두 한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 풀과 대나무 잎사귀에 붙어사는 정령이나 들판의 여우, 도깨비들이어서 온갖 똥 덩어리 위에서 어지럽게 씹어댈 뿐이니라. 눈먼 바보들이여, 저 시방의 시주물만 헛되이 소비하면서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하여 그릇된 견해만 지어내고 있느니라. 그대들에게 말해 주었느니라. '부처도 없고 법도 없으며,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고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옆길로만 쏘다니며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눈먼 바보들이여,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얹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니라. 도대체 그대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임제가 '남에게 줄 법이 하나도 없다' 한 것은 바꾸어 말하면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는 말이다. 이는 황벽의 〈전심법요〉에 나오는 말이다. 수행이라는 것이 자신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줄 법이 없고 얻을 법이 없는데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인가? 〈전심법요〉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오직 바로 당장에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이며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고 닦을 수 있는 수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단박에 깨닫는다면 이것이 곧 위없는 최상의 도이며, 바로 진여불(眞如佛)이다."

이것을 모르는 것을 임제는 눈먼 바보라고 한 것이다.

배휴(裴休)가 황벽(黃蘗)에게 물은 말이 있다.

"혜능(惠能) 스님은 경전을 몰랐는데 어떻게 법의(法衣)를 전해 받아 육조가 되었으며, 신수(神秀) 스님은 500명의 대중을 가르치는 교수사(敎授師)의 소임을 맡아 32본(本)의 경론(經論)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 왜 법의를 전해 받지 못했습니까?"

이 말에 답하기를 "신수 스님은 마음이 있었기(有心) 때문이니 이는 유위(有爲)의 법으로써 닦고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니라."

도(道)를 닦을 때는 무위심(無爲心)으로 닦는다고 한다. 무위심은 곧 무상심(無相心)이다. 마음속에 어떤 관념적인 생각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육조 스님은 〈금강경해의〉 서(序)에서 〈금강경〉을 두고 "무상(無相)으로 종(宗)을 삼고 무주(無住)로 체(體)를 삼으며 묘유(妙有)로 용(用)을 삼는다." 하였다.

또 육조 이전인 우두 법융(牛頭 法融 · 594~657) 때부터 강조한 무심합도문(無心合道門)이 있었다. 그가 남긴 말에 "적절히 마음을 쓸 때는 적절히 무심을 쓰라(恰恰用心時 恰恰無心用)"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무심이라 말하는 것이 유심과 다르지 않다(今說無心處 不與有心殊)" 하였다. 무심합도를 주장하면서도 무심이 유심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무심을 유심과 상대적으로 대치하여 분별심으로 보지 말라는 말이다. 선(禪)에서 그렇게 자주 쓴 무심이라는 말이 교리적으로 보면 탐(貪) · 진(瞋) · 치(痴) 삼독 등 번뇌가 없는 마음이다.

우리나라 고려 때 보조국사 지눌도 수선(修禪)의 방법으로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무심합도문을 주장하였다. 지눌은 조종(祖宗)의 무심합도가 정혜에 구애되지 않는다(祖宗無心合道者 不爲定慧所拘也)고 하였다. 그는 무심을 설명하기를 무심이란 심체(心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심중에 물(物)이 없는 것이 무심이니 마치 병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것을 빈병이라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유심은 괴로운 것이지만 무심은 스스로 즐거운 것이라 하였다. 임제의 사구송(四句頌)에도 무심을 강조한 법문이 있다.

若人修道道不行　만약 사람이 도를 닦는다 하면 도는 닦아지지 않는다.

萬般邪境競頭生　온갖 삿된 경계만 다투어 생길 뿐이다

智劍出來無一物　지혜의 칼을 꺼내 아무것도 남기기 말고 베어버려야

明頭未顯暗頭明　밝음이 안 나타나도 어둠이 밝아진다.

〈통도사 반야암 회주〉

業因의 근본 동력은 '근본번뇌'



세상 속 경전읽기

㊸ 견혹(見惑)과 수혹(修惑)

생물[有情]이 미망의 세계[迷界]에 생사윤회[流轉]하는 것은 불공업[不共業 · 개인이 지은 선악의 행위]이 원인이고, 바깥 세계의 삼라만상[諸法]이 생성전개(生成展開)하는 것은 공업[共業 · 공동으로 지은 선악의 행위]이 원인이다. 이러한 업인(業因)을 발하게 돕는 근본 동력은 근본번뇌[惑, 隨眠]이다. 6근본번뇌[6수면(隨眠)]는 탐(貪) · 진(瞋) · 치[痴, 무명(無明)] · 만(慢) · 의(疑) · 악견[惡見, 부정견(不正見)]이다. 곧 탐진치 3독심과 아만심, 의심, 나쁜 견해가 여섯 가지 근본번뇌로 〈구사론〉 제19권에 나온다.

"앞(권 제13 초)에서 세간의 차별은 모두 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업은 수면(隨眠, Skt. anuśaya)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장할 수 있으며, 수면을 떠난 업은 유(有, 애착에 의해 윤회 전생의 동력을 가지는 존재, 욕계 · 색계 · 무색계의 3유)를 초래할 만한 공능을 갖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이며, 수면에는 몇 가지가 있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수면은 모든 '유(有)' 의 근본으로, 이것의 차별에는 여섯 가지가 있으니 이를테면 탐(貪) · 진(瞋)과, 또 만(慢) · 무명(無明) · 견(見) 및 의(疑)이다.[前言世別皆由業生° 業由隨眠方得生長°離隨眠業無感有能 所以者何°隨眠有幾°頌曰°隨眠諸有本 此差別有六 謂貪瞋亦慢 無明見及疑]"

〈阿毘達磨俱舍論 T1558_.29.0098b18-b22〉

이 6수면은 대승의 유식학파에서는 5위 100법의 심소유법(心所有法) 중 근본번뇌심소(根本煩惱心所)에 속한다. 유식학파의 〈성유식론成唯識論〉은 세친(世親)의 〈유식삼십송〉을 주석한 것으로, 세친 문하의 10대논사(大論師)의 주석을 호법(護法)의 설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종합하여, 당나라 현장이 659년에 옥화사(玉華寺)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성유식론〉 재6권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번뇌심소의 양상은 어떠한가? 게송(〈유식삼십송〉의 제1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번뇌심소는 탐(貪) · 진(瞋) · 치(癡) · 만(慢) · 의(疑) · 악견(惡見)이다. 논하여 말한다. 이 탐(貪) 등 여섯 가지는 체성이 근본번뇌에 포함되기 때문에 번뇌심소라고 이름한다. [煩惱心所其相云何。頌曰。煩惱謂貪瞋 癡慢疑惡見 論曰。此貪等六性是根本煩惱攝故。得煩惱名。]"

〈成唯識論 T1585_.31.0031b15-b19〉

〈구사론〉 제 19권에 10수면[隨眠, 根本惑, 根本煩惱]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

"6수면은 견(見)의 차별에 의해 10수면이 되니 (여기서) 차별이란 이를테면 유신견(有身見) · 변집견(邊執見) · 사견(邪見) · 견취(見取) · 계금취(戒禁取)가 바로 그것이다. [六由見異十 異謂有身見邊執見邪見 見取戒禁取]"

〈阿毘達磨俱舍論 T1558_.29.0099a29-b01〉

10수면은 6수면의 악견(惡見)을 다시 유신견[有身見; 나와 내 것이 있다는 견해] · 변견[邊見 · 斷見과 常見] · 사견[邪見 · 인과를 부정함] · 견취견[見取見 · 그릇된 견해를 바른 것으로 간주하여 거기에 집착하는 견해] · 계금취견[戒禁取見 · 그릇된 계율이나 금지 조항을 바른 것으로 간주하여 거기에 집착하는 견해]의 5종으로 세분하여, 탐진치만의(貪瞋痴慢疑)와 합한 것으로 10사(使)라고도 한다. 이중 5견(見)은 견도위(見道位)에서 돈단[頓斷 · 돌을 깨듯이 단번에 끊음]하므로 견혹(見惑) 또는 5리사[利使 · 예리하게 끊어지는 번뇌]라고도 하고, 탐진치만의(貪瞋痴慢疑)는 수도위(修道位)에서 점단[漸斷 · 연밥의 실이 늘어나면서 잘 안 끊어지는 것을 끊듯이 점차로 끊음]하므로 수혹(修惑) 또는 5둔사[鈍使 · 둔하게 끊어지는 번뇌]라고도 한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㊽ 깨침의 길 4

깨침에 이르는 4단계(四果)

20살 시절 큰형님이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양복을 입게 되었다. 그 당시는 양복점에서 치수를 재고 옷을 맞춰 입었기 때문에 비교적 몸에 잘 맞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잘 안 입던 옷이어서 그런지 조금은 불편했다. 양복을 입은 설렘에 한껏 폼을 잡아보았지만, 폼이 잘 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때 느꼈다. 폼 잡기도 쉽지 않지만 폼 나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다. 옷 입는 것도 그러한데, 우리네 삶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깨침의 세계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삶, 고통의 삶을 청산하고 깨침의 길로 들어섰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폼이 잘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생으로 살았던 습기(習氣)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여러 종파에서 깨달음의 세계에 단계와 과정을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이는 곧 폼 잡는 단계에서 폼 나는 단계로 한층 성숙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부파불교에서는 깨침에 이르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소승사과(小乘四果), 혹은 성문사과(聲聞四果)라고 한다. 성문이란 글자 그대로 붓다의 음성을 직접 듣고 수행하는 제자를 가리켰다. 그런데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下化衆生)' 보살이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부각하면서 성문은 홀로 연기의 진리를 깨치는 연각(緣覺)과 함께 소승으로 분류되었다. 성문과 연각, 보살을 흔히 삼승(三乘)이라 부른다.

성문사과에서 맨 처음으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 경지를 수다원과(須陀洹果)라고 한다. 이를 한자로 입류과(入流果), 혹은 예류과(預流果)라고 하는데, 깨침이라는 흐름(流)에 들어갔다(入)는 뜻이다. 이 경지에 들기 위해서는 사성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색 · 성 · 향 · 미 · 촉 · 법의 경계에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수다원과에 들게 되면 욕계(欲界)와 색계(色界)를 7번 반복한다고 한다. 비유하자면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폼을 잡는 단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다함과(斯陀含果)다. 일래과(一來果)라고도 부르는데, 천상계와 인간계를 한번 왕래한다는 뜻이다.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의 세계에 들었으나, 아직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윤회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수다원과에 비하면 수행이 많이 익은 단계다. 비유하자면, 양복을 자주 입어서 몸에도 익숙하여 폼이 조금 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나함과(阿那含果)다. 이 경지는 불래과(不來果), 혹은 불환과(不還果)라고도 하는데, 윤회하는 세계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행이 많이 익어서 더 이상 욕심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경지다. 양복을 입었어도 입은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폼이 아주 잘 나는 상태에 비유하면 어떨까 싶다.

마지막 단계는 아라한과(Arahan, 阿羅漢果)다. 이 단계는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은 경지다. 번뇌라는 도적을 죽였다고 해서 살적(殺賊)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사람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는 의미에서 응공(應供)이라고도 한다. 깨달음을 이룬 성인 가운데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사찰에 있는 나한전(羅漢殿)은 바로 아라한을 모신 전각이다.

이처럼 성문사과는 번뇌를 끊은 정도에 따라 깨침의 질적 차이를 두고 있다. 경전에도 '누구는 수다원과에 들었다, 누구는 아라한과에 들었다' 는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물론 이것은 수행의 차이에서 결정되지만, 근본적으로 얼마나 폼이 잘 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폼은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난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불교에서 깨달음에 관한 돈오점수(頓悟漸修)와 돈오돈수(頓悟頓修)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돈점논쟁의 핵심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 얼마나 깨치고 닦았는지는 순간순간 부딪치는 경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서 반복한 것처럼 폼 잡기도 쉽지 않지만 폼 나기는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